
2012년 2차 광공업지수(IP) 전문가회의 결과

2012. 10.

목 차

I. 개 요

- 1. 회 의 명 3
- 2. 회의일시 및 장소 3
- 3. 배경 및 개최 목적 3
- 4. 참 가 자 3

II. 회의 일정 4

III. 회의 내용 요약

- 1. 연쇄지수 작성방법 5
- 2. 연쇄지수 가중치 6
- 3. 출하내역별 지수 7

1. 회 의 명

- 2012년 2차 한-일 광공업지수(IIP*) 전문가회의
* Indices of Industrial Production

2. 회의일시 및 장소

- 회의일시 : 2012. 10. 9.(화) 10:00 ~ 18:00시
- 회의장소 : 일본 경제산업성(METI*), 도쿄 10층 대회의실
* Ministry of Economy, Trade and Industry

3. 배경 및 개최 목적

- 회의배경 : 제5차 제조업통계전문가회의('11.3,서울)에서 통계청과 일본경제산업성간 협력증진 합의에 따라 일본측에서 회의제안('11.8)
- 개최목적 : 한-일 광공업지수(IIP) 작성 전문가 주제별 토론

4. 참 가 자

- 한국 통계청
 - 산업동향과 : 산업동향과장 등 4명
 - 산업동향과 전백근 과장
 - 산업동향과 광공업동향조사 담당 홍성희 사무관
 - 산업동향과 지수개편 담당 송요성 사무관
 - 산업동향과 지수개편 담당 윤성준 주무관

○ 일본 경제산업성(METI) : 6명

- Mr. Hajime Tadokoro 경제산업성 경제분석실 실장
- Mr. Noriyuki Seshimo 경제산업성 경제분석실 사무관
- Mr. Izumi Takagawa 경제산업성 경제분석실 전문관
- Mr. Tomohiko Hayakawa 경제산업성 경제분석실 사무관
- Ms. Erika Takata 경제산업성 경제분석실 실무자
- Ms. Youngi Eom 통역(한-일)

II 회의 일정

일시		일정	비고
10.9 (화)	11:00-11:15	인사말	조사통계국장, 일본
	11:15-11:20	인사말	KOSTAT, 한국
	11:20-12:10	의제(1) 발표 (ROK)	50분
	12:10-13:40	중 식	
	13:40-14:30	의제(1) 발표 (METI)	50분
	14:30-14:40	휴 식	
	14:40-15:10	의제(1) 토론	30분
	15:10-15:20	휴 식	
	15:20-16:10	의제(2) 발표 (ROK)	50분
	16:10-16:20	휴 식	
	16:20-17:10	의제(2) 발표 (METI)	50분
	17:10-17:20	휴 식	
	17:20-17:50	의제(2) 토론	30분
	17:50-18:00	종 료	
18:00-21:00	리셉션	3시간	

1. 연쇄지수 작성방법

- (작성 여부)UN 작성권고안 및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양국 모두 연쇄 Laspeyres지수를 작성하나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음
 - 한국은 연쇄지수 작성 연혁이 짧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반면
 - 일본은 연쇄지수가 고정지수보다 현실반영에 반드시 유용하다는 증거가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공표
- (작성 방법)연쇄 Laspeyres지수의 작성방법은 UN 작성권고안의 ‘연간중첩법’*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
 - 일본은 연쇄지수 작성 초기, 전월중첩법*을 도입한 적이 있음
 - * 연쇄지수의 기준점을 전년 평균(연간중첩)인지 직전월(전월중첩)인지 차이
- (Step문제)양국 모두 시점간 지수변화가 크지 않아 Step*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
 - * 가중치 변화 시점인 전년말(12월)과 당년초(1월)의 시계열 이격
 - 양국의 연쇄지수 가중치를 비교한 바, 석유정제 등 업종 비중이 유사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

< 연쇄지수 작성방법 비교 >

	주요 내용	비고
1) 작성 여부	- 연쇄지수를 작성중이나 공표하지 않음 - 일) 연쇄지수가 반드시 유용하다는 증거 없음	동일
2) 작성 방법	- 연간 중첩법 - 일) 초기 전월중첩법을 도입 검토	동일
3) Step 문제	- 양국 모두 Step 문제가 크게 노출되지 않음	동일

2. 연쇄지수 가중치

- (가중치 기준)양국 모두, 연쇄지수 가중치는 ‘모집단*의 품목별 순부가가치 비중’을 사용하고 있음
 - * 모집단을 모두 광공업통계조사(연간) 기준
 - 일본도 UN권고안과 달리 순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데, 그 이유는
 - 1) 고정자본소모(감가상각)를 조사하기 힘들고
 - 2) 총부가가치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
 - 3) 순부가가치로 작성한 기존 시계열을 유지 등

- (가중치 단위)가중치 단위는 사업체가 아닌 품목*으로 집계하며 품목별 비용 및 부가가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출
 - * 원재료비, 전력비, 감가상각 등 비용을 품목별로 분할하여 부가가치 산출

- (Y-1 가중치 추정)모집단이 있는 Y-2년 가중치는 양국 모두 산출 가능하나 모집단이 없는 Y-1년 가중치는, 한국의 경우 추정하여 사용하나 일본은 추정하지 않음

< 연쇄지수 가중치 비교 >

	주요 내용	비고
1) 가중치 기준	- 모집단의 품목별 순부가가치 비중 - 일) 1) 감가상각을 조사하기 곤란하고 2) 총부가가치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3) 기존 순부가가치 시계열 유지	동일
2) 가중치 단위	- 사업체가 아닌 품목별 가중치 산출	동일
3) Y-1 가중치 추정	- 한) 최근 가중치 추정하여 사용 - 일) 최근 가중치 추정 안함	

3. 출하내역별 지수*

* 최종 출하지역을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로 구분한 지수

- (출하 내역)한국의 경우, 사업체의 품목별 출하내역(내수, 수출)을 조사하나 일본*은 조사하지 않음
 - 출하내역 포함 조사시 사업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조사 제외
- (일본의 출하내역)품목별 출하내역을 알 수 있는 수출입통계*를 이용하여 내수, 수출지수를 작성
 - * 경제산업성으로 수출입통계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
- (산출 과정)일본의 경우, 출하내역지수 작성을 위해서는
 - 수출입 품목(6~8천여개)과 동향조사 품목(500여개)을 사전 연계
 - 업무량이 과다하고 내수지수의 음(-)방향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수출지수와 IIP의 정합성이 매우 높아 활용 가치가 있고 국내 총공급 등 2차 통계 작성에 활용 가능함

< 출하내역별 지수 산출 >

	한 국	일 본
1) 작성 방법	- 품목별 출하내역 조사	- 수출입 통계자료 활용
2) 정 합 성	- 출하지수와 내수, 수출 지수 연계 정합	- 내수지수가 음(-)방향인 부조화 발생 가능
3) 장 단 점	- 작성 방법이 간단	- 작성 방법이 복잡하나 총공급지수 작성에 활용